

국산 소프트웨어의 성공을 견인한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아라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 국산화 100대 기반 조성에는 일괄 지원 시동
을 건립하여 지원 후반기 목표 달성에 힘써 다하고 있다. 국산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에 대해 소개한다.

software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http://www.software.or.kr>)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는 최신 IT뉴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최근 법·제도 개선 내용, 국내외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해외 소프트웨어시장 정보 등 다양한 IT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IT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IT벤처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우

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998년 재단법인으로 출발해 2000년 SW산업진흥법이 공포되면서 정보통신부 산하의 특수법인으로 거듭났다.

2002년에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공포되면서 디지털콘텐츠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명실상부 우리나라 SW·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진흥원의 SW산업정책의 화두는 단연 '국산화'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IT 공개SW 활성화를 이끌어냈고, 올해는 국산화 증대 기반 조성, 2006년에는 전략적 국산화 증대 실현을 목표로 SW산업 부흥에 힘쓰고 있다.

SW산업 성장 토양 마련에 주력

설립 초기 정부의 벤처육성정책에 따라 SW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에 주력해 오던 진흥원은 2003년 3대 고현진 원장이 취임하면서 공개SW 확산의 전도 기관으로 그 모습을 일신했다. SW산업, 나아가 IT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 공개SW라는 신념하에 작년 EBS, 강원대, 교육부 등 12개 공공기관의 정보화 시스템을 리눅스 기반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완료했고, 전자정부전문위원회의 전자정부 사업 공개SW 도입 권고안 채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공개SW 도입으로 공개SW 활성화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공개SW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중심의 시범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진흥원은 올해 시범사업을 인터넷뱅킹 등 사용자 편의성 제고와 기관의 기간 업무에 초점을 맞춰 전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리눅스 표준 스펙인 부요(BOOYO)를 7월 8일 발표하고 공공 부문 웹접근성 개선 지원 활동 등 공개SW 확산을 위한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10년 국산화율 40%를 달성하기 위한 진흥원의 정책 주류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법·제도 개선 활동을 통한 SW산업 성장 토양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BMT활성화와 GS(Good Software)인증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확산, 중소기업 상품 고도화 지원 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

로를 개척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마련된 대기업 수주 하한제와 SW사업 대가기준 등 일련의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등 법·제도 개선활동을 통해 SW산업의 수익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진흥원은 정부 간 협력사업을 발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SW기업의 전략 수립을 돕고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SW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IT산업 기반 육성 및 핵심인력 양성 강화

디지털콘텐츠산업은 주요 도시에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제작협력센터,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용장비 활용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게임테스트베드·모바일콘텐츠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콘텐츠 기업을 지원한다. 역시 해외 마케팅을 활용한 비즈니스상담회의 지속적인 개최로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우수 콘텐츠를 발굴해 해외 현지 콘텐츠 서비스 환경에 맞도록 언어, 플랫폼 등을 현지화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무엇보다 DMB, 홈네트워크, Wibro, 텔레매틱스 등 IT839 신규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차세대 첨단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이 진흥원의 디지털콘텐츠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IT SoC(System on a Chip)산업 육성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펼치는 진흥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이다. 현재 절대 부족한 SoC 핵심설계인력의 양성에 주력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SoC 설계, 제품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SoC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편 진흥원은 세계 수준의 유비쿼터스 IT Business Hub인 '첨단 IT 콤플렉스'를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내에 2007년까지 건립한다. 첨단 IT콤플렉스는 서울시가 조성 중인 미래형 기술집약 특화단지인 DMC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며 IT R&D센터, IT비즈니스 센터, 공동센터 및 디지털 파빌리온 등 4개의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R&D와 생산, 마케팅이 연계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IT집적지 및 기술 특화단지와는 차별화된 유비쿼터스 IT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IT기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SW 정책지원팀 신재식 팀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벤처기업 지원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신뢰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SW제품의 품질향상 및 구매를 유도하는 GS(Good Software)인증 우선 구매제도 등을 실시해 품질 좋은 SW에 대해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은 물론, 해당 SW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천함으로써 SW산업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SW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시장 정보 제공, 국내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테스트베드 지원 등 차별화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문의 02-2141-5000)